

# “미래 인재 육성 식품요리과학고 설립”

### 유광찬 교육감 예비후보, 익산시 ‘도민과 함께, 더 잘하는 행복교육 찾기 프로젝트’ 대장정

유광찬 교육감 예비후보(유 예비후보)는 “도민과 함께, 더 잘하는 행복교육 찾기 프로젝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발을 선언했다고 5일 익산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더 잘하는 교육감, 더 잘 준비된 교육감 후보로, 더 잘하는 학력, 더 행복한 학교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도민과 함께, 더 잘하는 행복교육 찾기 프로젝트’ 대장정에 나서 무주에 이어 두 번째로 익산을 찾았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할 뻔했던 학창 시절, 익산은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을 계속하게 해 준 커다란 은혜를 입은 곳이고 익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된 특별한 인연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익산이 가진 특별한 자원과 인프라인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식품요리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고등학교, 또는 신설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를 만들어, 익산을 명실상부한 식품수도로 성장시키는 데 일조하면서 학생들의 진로

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 또 “세계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역사문화교육의 일변지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게다가 유 예비후보는 “익산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시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부모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익산주민참여 교육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날 유 후보는 “교육감은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며, 정치논리나 진영논리가 아닌 교육논리로 뽑아야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고”, “학교현장의 교육경험과 검증된 행정경험이 필수조건이라고 밝히면서,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전복교육을 맡기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복의 기초학력이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을 통해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 학력신장팀을 신설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리고, 미래사회에서 각자의 꿈을 꽃피우는 ‘꿈꽃교육’을 통해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와 교직원



유광찬 교육감 예비후보는 ‘도민과 함께, 더 잘하는 행복교육 찾기 프로젝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발을 선언했다고 5일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행복한 전복교육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유 예비후보는 “초등학교 교사출신으로 현장 교육경험이 있고, 중고등학교 강사와 임시교사까지 경험했”으며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대교수로서 누구보다 더 잘 준비된 현장교육 전문가”라고 말했다.

한편 유광찬 교육감예비후보는 “국

립대 총장으로서, 전주교대를 전국 제일의 교대로 성장시킨 성공한 교육 행정력까지 검증받은 후보라”며 “자신이 전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복을 대한민국 교육 1번지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후보이기 때문에, 익산 시민들과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여서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지역의 문화주체로서 시민이 함께 하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자원봉사자 모집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지역의 문화주체로서 시민이 함께 하는 박물관을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할 재능 기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연극, 인형극, 근대해설사 전래놀이 총 4개 분야이며, 지원 자격은 군산시민으로서 주 1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이 가능하며 봉사 활동에 대한 열의와 책임감을 가진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근대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참조)를 갖춰 3월 7일부터 11일까지 박물관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박물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교육과 역사문화탐방의 기회가 제공되며, 자원봉사포털사이트와 연계된 봉사활동 실적 인정되

어 연말 우수봉사자 수상의 기회도 주어진다.

현재 박물관에는 연극, 인형극, 페이스페인팅, 종이접기, 민속놀이, 문화해설 등 100여명의 시민자원봉사자들이 본인의 재능을 살린 차별화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극 자원봉사의 경우, 박물관 근대생활관에서 1930년대 시간여행이라는 주제의 공연을 통해 박물관 이미지 조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형극 자원봉사는 역시 박물관 규장각실에서 지역의 역사인물을 소재로 인형극을 공연하여 어린이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군산근대역사박물관(☎54-787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관곤 기자

## 원광대병원 전복금연지원센터 3년 연속 전국 최우수센터 선정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우영)에서 운영 중인 전복금연지원센터(센터장 오경재)가 전국 18개 지역금연지원센터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2017년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최종평가 결과,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전국 최우수센터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전복금연지원센터는 제 1기(2015-2017년) 사업기간 동안 3년 연속으로 전국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복금연지원센터는 2015년 6월 개소한 이래 전복도민의 흡연을 감소 및 금연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연상담 자대에 있는 대상자(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를 위한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펼쳐오고 있다. 또한 중증고도 흡연자를 위한 금연캠프, 입원환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지역사회 보건요기관과 연계한 금연활동 및 홍보 캠페인을 기획·추진함으로써 전복도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원광대학교병원 전복금연지원센터는 지난 3년 동안 4회의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전복도지사 표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보이며 지역사회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민간일자리 취업 돕는 디딤돌 역할 톡톡

### 익산시, 취업 희망 청년 위한 뉴딜일자리 사업 본격 시동



5일 통합문화전수교육관 2층 실내공연장에서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익산시(시장 정현윤)는 5일 통합문화전수교육관 2층 실내공연장에서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참여자들에게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고취하고자 참여자 및 부서관계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

다고 밝혔다.

지난 2월 9일까지 모집공고를 통해 청년 SNS 마케팅 등 23개 사업 66명을 선발했으며, 참여자들이 경력형성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최장 10개월 동안 각 사업별 영역에서 근무한다.

사업참여자들은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2018년 뉴딜일자리 사업 설명, 취업특강 등을 수료한 후 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현윤 시장은 “최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과 고용여건 악화가 계속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익산시는 뉴딜일자리 사업에 선발된 분들이 관련 민간일자리 취업할 수 있도록 직무·취업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취업기회를 부여 시키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들도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많이 경험하고 배워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뉴딜일자리 사업은 익산시에서 2016년도부터 시행중인 시장 공약사업으로 청년을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 취업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일자리사업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시, 안전한 먹거리 생산 위한 우렁이 지원사업 시행

익산시(시장 정현윤)는 제조제 사용을 줄여 자연환경 및 농업 생태계를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2018년 우렁이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오는 1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받으며, 총 사업량은 800ha 40톤으로 전체사업비는 2억원(보조 50%, 자부담 50%)이며, 제조용 우렁이 투입 기준량은 ha당 50kg이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벼 재배를 하며 제조용 우렁이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로 경영체당 지원한도는 3ha까지다.

우렁이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농가는 오는 5월부터 본인이 원하는 익산시 관내 양식업체를 통해 제조용 우렁이를 구입해 투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렁이 지원사업 추진으로 제조제 사용을 감소시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촌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청정·안전 식익산 향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시,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최

### 35개 사업, 1037억원 선정

익산시(시장 정현윤)는 5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을 위한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총 35개 사업 1,037억원을 선정했다.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익산시, 대학교수, 유관기관장, 농·축협조합장, 산림조합장, 농업인단체 등 기관단체 대표자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을 위한 사업을 심의했다.

이날 선정된 주요사업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조립·숯가꾸기 사업, 쌀소득보전·발농업직접지불제, 원예시설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산림소득사업, 다목적농촌융수개발사업 등 35개 사업 1,037억원이었다.

미래농장국 관계자는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19일까지 홈페이지, 읍·면·동 등을 통해 사업신청 홍보를 실시했으며, 사업신청 마감 후에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신청서를 검토하고, 이번 심의회에 상정해 최종 선정했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꿈·희망을 담은  
 동북아경제추진 명품도시 군산

익산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